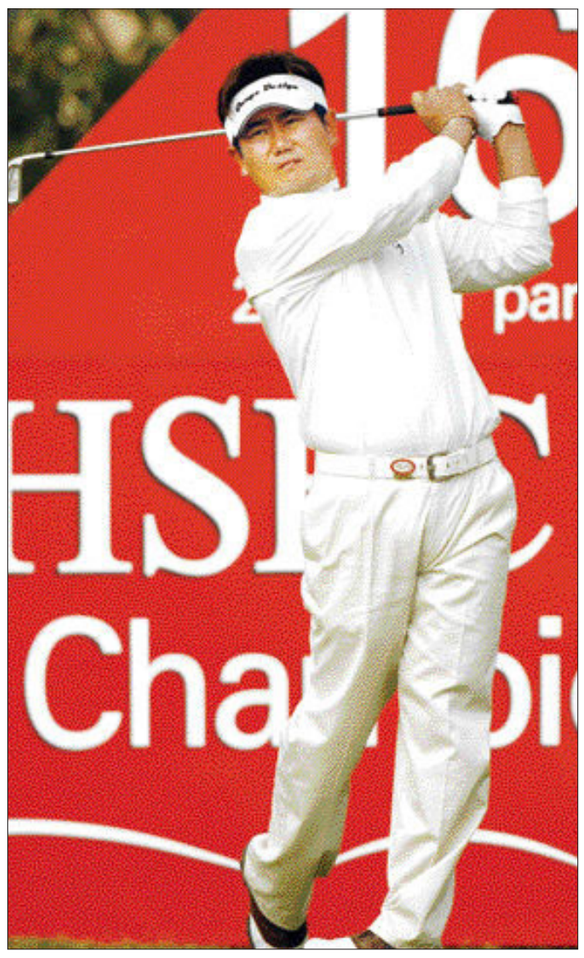
양용은 "내년엔 PGA 전념"

총 17개 대회 출전 예상

벅찬 일정…체력이 열쇠



"내년에는 미국을 주무대로 삼을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유럽프로골프투어 HSBC챔피언스에서 우승, 세계적 스타로 떠오른 양용은(34·게이지디자인·사진)이 내년에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주로 뛸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훈련과 휴식을 병행하고 있는 양용은은 26일 "사실상 PGA 투어 선수로 내년 시즌을 보낼 계획"이라고 알려왔다.

연말 세계랭킹 33위로 2007년을 맞게 된 양용은은 세계랭킹 상위권자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PGA 투어대회가 12개에 이르는데다 초청 선수로 7개 대회까지 나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용은은 "내년에는 PGA 투어에서 17개 대회를 소화하는 일정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퀄리파잉스쿨에서 투어 카드 획득에 실패했지만 사실상 PGA 투어 멤버나 다름없는 대회 출전 횟수가 보장된 셈이다.

PGA투어는 투어 카드가 없는 선수라도 상금랭킹 125위 이내에 들면 이듬해 투어 카드를 주기 때문에 양용은은 2007년 시즌에 PGA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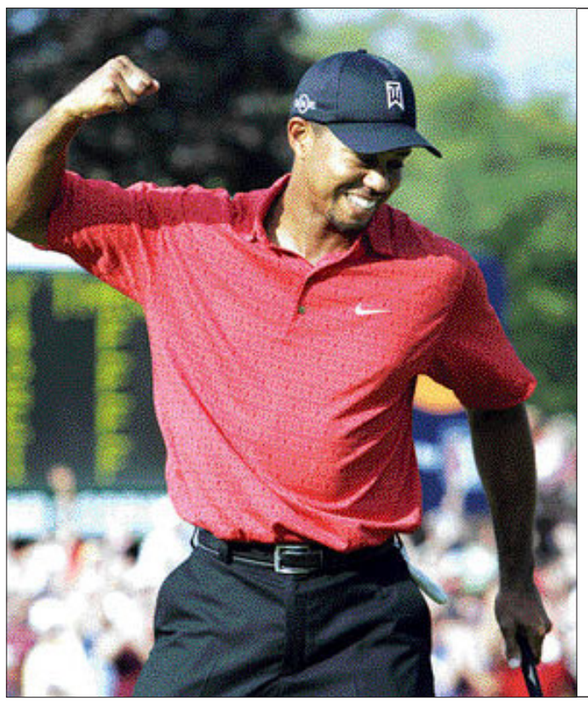
양용은은 내년 2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릴 월드골프챔피언십시리즈 악센추어 월드매치플레이챔피언십 출전이 확정돼 있어 앞서 열리는 닛산오픈 등에서 PGA 투어 시즌을 시작하게 된다.

또 2년간 투어 카드를 받은 유럽프로골프투어에도 3~5개 대회를 출전하기로 했다.

한국대회에도 나설 생각인 양용은은 "일본프로골프 투어 대회는 일정이 비면 한 두 차례 나갈 생각이지만 PGA 투어와 유럽투어가 우선이기에 1개 대회도 출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용은은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 등에서 25개 대회를 치른다는 기본 계획을 짜놓았다"면서 "일정이 빡빡하고 이동 거리가 만만치 않아 체력이 열쇠라고 보고 강도높은 체력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용은은 연말을 미국에서 보낸 뒤 1월 초 한국에 돌아왔다가 1월9일 태국으로 출국, 유럽-아시아 대륙 대항전인 로열트로피 대회에 출전하는 것으로 2007년 시즌 막을 올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즈 '올해의 남자선수'

■ AP통신 선정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AP통신이 선정한 '올해의 남자선수'에 뽑혔다. AP통신은 우즈가 세계 각국 언론매체의 스포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260 포인트를 얻어 올해 최고 남자 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26일 밝혔다.

네 번째 AP 선정 '올해의 남자선수'상을 받게 된 우즈는 '사이클의 제왕' 랜스 암스트롱(미국)과 함께 사상 최다 수상 타이를 이뤘다.

미국 프로풋볼(NFL) 시즌 최다 터치다운 기록(31개)을 세운 샌디에이고 차저스의 러닝백 라다이니언 톰린슨이 230 포인트를 얻어 우즈에 이어 2위에 올랐고, '테니스 황제' 로더 페더러(스위스)는 3위에 그쳤다.

이밖에 미 프로농구(NBA) 마이애미 히트의 가드 드웨인 웨이드, 미 프로야구 강타자 알버트 푸홀스(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도 경합했지만 시즌 8승을 쓸어담은 우즈에 밀렸다.

■ 20세이하 청소년축구대표팀 오늘 스페인 전훈

"유럽 적응·수비 조직력 높인다"

20세 이하 청소년축구대표팀이 내년 7월 캐나다에서 열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를 대비해 스페인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이날 정오 파주 NFC에 선수들을 소집해 27일 오후 스페인으로 출발한다. 내년 1월15일까지 3주가량 세비야에 베이스캠프를 차려놓고 레알 마드리드 2군 등 현지 클럽과 대여섯 차례 연습경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훈을 떠나는 선수는 총 25명.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20명 가운데 최철순(전북)과 김응진(연세대), 김동석(서울), 박주호(숭실대) 4명이 빠지고 브라질 프로리그에서 뛰는 권준(피구에렌세), 프랑스 FC메스의 어경준, 내년 K-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수원 1순위로 지명된 하태균(단국대) 등 9명이 포함됐다.

내년 세계선수권 대비 3주간

이번 전훈의 목표는 유럽 선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수비 조직력을 중점 강화하는데 있다.

조동현 청소년대표팀 감독은 "일단 힘이 좋은 유럽 선수들과 부딪혀보고 경험을 쌓는 것이 이번 전훈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세부적으로는 아시아선수권대회 때 다소 허점을 보였던 스리백(3-back)을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대표팀은 스페인 전지훈련 이후 내년 3월 수원컵대회 때 다시 호흡을 맞추고 5월 말이나 6월 초 파주NFC에 재소집돼 세계선수권대회를 향한 막판 담금질에 들어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활처럼 휘어서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2006~2007 북미프로농구(NBA) 마이애미 히트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에서 마이애미의 드웨인 웨이드가 드라이빙 레이업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올림픽축구 대표팀

한국인 이충성 귀화 추진

일본 올림픽축구 대표팀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교포 3세 스트라이커 이충성(21·가시와 레이솔)의 귀화를 추진 중이라고 일본 스포츠전문 일간 스포츠 호치가 보도했다.

26일(한국시간)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올림픽 축구대표팀 소리마치 야스하루 감독이 이충성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 장신 공격수 히라야마 소타(FC도쿄)와 함께 투톱을 구성하려 하고 있으며 이충성도 귀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일동포 3세로 도쿄에서 태어난 이충성은 180㎝의 키에 스피드와 왼발 슈팅이 뛰어난 최전방 공격수로 지난해 FC도쿄에서 가시와로 이적했다.

올 시즌에는 지난 9월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2개월간 그라운드를 떠나 있었는데도 31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며 팀의 1부리그 승격에 공헌했다.

이충성은 2004년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18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에 소집된 적은 있지만 공식 국제경기출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귀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스포츠주개

27일(수)

▲전국 통일장사 씨름대회(14 : 00·KBSN Sports)

▲프로농구〈동부-SK〉(18 : 50·Xports)

▲V-리그〈KT&G-도로공사〉(16 : 00·KBSN Sports), 〈삼성화재-LIG〉(18 : 30·KBSN Sports)